

### ⑬담양 관광 1번지 죽녹원

#### 대나무 살아나면 담양이 살아난다

담양은 지명부터 못 담(潭), 별 양(陽)으로 환경친화적이다. 담양은 대나무숲과 함께 정철과 송순의 인문 정신이 깃든 슬로시티, 생태도시로 변신하고 있다. 담양은 현재 2565ha인 대나무밭을 1만ha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대나무가 지금의 4배로 늘어나면 담양군은 한국에서 산소 발생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 된다.

1970년대 이후 죽물(竹物)이 플라스틱에 밀리고 중국산에 자리를 내주기 시작할 때만 해도 담양 사람들은 "대나무로 먹고살던 시대는 우리 대(代)에서 끝났다"며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담양군은 2003년부터 대나무밭을 사들여 테마공원(죽녹원·竹綠苑)을 만들고 대나무로 가로수를 심기 시작했다. 당시 지역사회에는 "사양길로 들어선 대나무로 뭘 하자는 건가" 하는 싸늘한 분위기가 있었다.



청과 백의 조화가 아름다운 죽녹원의 겨울.[사진=황호택]

‘대나무에 미친 사람’이라는 말까지 들던 최형식 군수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했으나 610표 차로 낙선했다. 4년 쉬며 와신상담한 그는 그 뒤로 내리 3선을 해 도합 4선을 했다.

담양군의회 의원들도 중국 저장성(浙江省)의 대나무 도시 안지현(安吉縣)을 돌아보고 와서는 인

식이 달라졌다. 대나무 숲으로 관광객도 끌여오고 먹고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담양군 공무원들은 안지현에서 대나무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법을 배워왔다.

담양의 관광 붐은 카페 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인구 4만6000여명 시골 군(郡)에 카페가 213개. 최근에는 담양읍 백동사거리에 웅장한 투썸플레이스가 문을 열었다. 카페가 인구 216명 당 1 개꼴인데 대부분 관광객을 상대로 성업 중이다.

## 담양의 관광 붐…시골 郡에 카페 213개

담양에서 대나무가 잘나가던 시절에 ‘대밭은 생(生)금밭’이라는 말이 생겼다. 조선시대부터 담양 경제는 대나무가 움직였다. 대나무가 살아나면 담양이 살아나고 대나무가 약하면 담양이 약해졌다. 담양에서는 고려 초부터 음력 5월 13일을 죽취일(竹醉日·대나무를 심는 날)로 정해 마을 주변에 대나무를 심고 죽엽주를 마셨다. 지금은 이 행사가 대나무 축제로 발전했다.

15세기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에 담양에서 올리는 공물이 가는 대, 왕대, 오죽, 화살대, 죽력(竹瀝·대나무를 구워서 나온 진액)으로 기록돼 있을 만큼 대나무 산업의 역사가 오랜 고장이다. 조선시대부터 대나무로 만든 물레 바늘상자 샷갓 방석 바구니 키가 생산되었다. 조선말기부터 담양의 죽물은 만주 몽골로까지 진출했다.

담양에서 1916년에는 참빗을 만드는 진소계(眞梳契)라는 조직이 만들어졌다. 1919년에는 참빗조합으로 발전하고 1926년 산업조합이 탄생했다. 1930년대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죽제품의 상품화가 이뤄졌다.



죽녹원에 붙어 있는 담양 향교. 죽녹원은 담양 향교의 대나무밭을 임차해 조성했다. [사진=황호택]

담양이 '전남에서 가고 싶은 곳 1위'로 올라간 데는 죽녹원 효과가 크다. 담양군은 2003년 향교가 소유한 대나무밭을 임차하고 인근 대밭을 사들여 31만238㎡(9만3840평)의 땅에 죽녹원을 개장했다. 지금은 연간 120만 명 관광객이 죽녹원을 찾는다. 4.2km에 이르는 대숲 산책길과 죽림욕장에는 평일에도 탐방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죽녹원은 경관을 가꾸기 위해 간벌을 하면서 죽세공 용도의 대나무를 생산하는 경제림이 됐다.

죽녹원의 8개 길에는 모두 이름이 붙어 있다. 운수대통 길, 죽마고우 길, 사색의 길, 추억의 샛길, 사랑이 변치 않는 길, 성인산 오름길, 철학자의 길, 선비의 길.

죽녹원 북쪽에 있는 시가문화촌은 담양의 정자문화와 한옥 체험을 한곳에서 할 수 있는 문화역사 공간이다. 담양의 정자를 대표하는 면양정 송강정 식영정 소쇄원 광풍각 명옥헌 환벽당을 실물대(實物大)로 재현해 놓았다. 우송당(소리전수관), 한옥체험장, 죽로차 체험장에서도 담양의 문화와 풍취를 만날 수 있다. 추성창의기념관은 임진왜란 당시 고경명 의병장을 중심으로 전국 최초로 창의(倡義)의 깃발을 올린 6000여 의병의 우국충절을 기리는 건물이다. 삼지내마을의 고재선 가옥을 모티브로 한 사군자 공원도 개장을 앞두고 있다.



죽녹원의 폭포. 중국 쓰촨(四川)성에 주로 사는 판다는 대나무 잎을 먹고 산다. [사진=황호택]

이이남 아트센터에서는 현대적인 미디어 아트를 감상할 수 있다. 이 작가의 고향은 담양. 2층 대나무 숲으로 들어서면 김홍도의 '묵죽도'와 조익의 '청죽도'를 재해석한 영상과 함께 대나무가 바람에 흔들릴 때 나는 소리가 들린다. 동양의 고전 원작과 현대미술이 함께 작품 소재가 된다. 이 작가는 클래식 작품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그것이 어떤 현대적 가치를 생산하는지를 오랫동안 탐구했다.

대나무는 이름처럼 나무가 아니다. 벼과(科) 식물이다. 벼 보리 밀 갈대 옥수수처럼 다년생 풀이다. 대나무는 매년 죽순이 나와 하루 1m 이상 자란다. 대나무가 빨리 자라는 이유는 다른 벼과 식물처럼 줄기의 속이 비어 있기 때문이다. 속을 채우는 데 영양분을 쓰지 않으니 빨리 높이 자라서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각 마디마다 성장점이 있어 동시에 자라기 때문에 30~40일이면 다 자란다. 그래서 경제성이 높다. 대나무의 생명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해 베트남 전쟁에서 고엽제 살포에도 끄떡없이 살아남았다.



대나무는 줄기 표면의 색깔로 연령을 구분할 수 있다.  
 녹색이 가장 진한 것이 1년생이고 나이가 들수록 옅어진다. [사진=황호택]

대나무는 연녹색이 진한 것이 1년생이고, 연하면 2년생, 노란 것이 3,4 년생이다. 5년생 이상은 빨갭니다. 항균작용을 하는 연녹색이 없어지면 시커먼 점이 생기기 때문에 빨갭 외에는 용도가 없다.

다른 벼과 식물은 매년 씨앗을 인간의 먹이로 제공하는데 대나무는 평생 한 번 꽃을 피우고 씨앗을 만들면 죽는다. 대나무는 인간에게 씨앗을 제공하지 않는 대신에 그 몸통을 내주었다. 플라스틱이 나오지 않던 시절에 인간은 대나무의 단단하고 썩지 않는 줄기로 온갖 생활도구를 만들었다.

죽녹원에는 왕대 맹종죽 분죽(솜대)이 뽐뽐이 들어차 있다. 죽녹원을 걸으며 대나무 이름 맞히기를 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관광객이 이 세 종류의 대나무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줄기 마디 앞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등향각은 죽녹원에서 가장 덜컥스한 숙소다. [사진=황호택]

‘왕대밭에 왕대 난다’는 속담 때문인지 죽녹원에 와서 왕대와 맹종죽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가장 키가 크고 굵은 대나무는 왕대가 아니라 맹종죽이다. 맹종죽은 몸피의 직경이 20cm에 달한다. 죽질이 연해 죽순이 식용으로 많이 쓰여 죽순대라고도 한다. 맹종죽은 연해서 잘 휘어진다. 멀리서 보아 대통이 굵고 휘어진 나무는 맹종죽이다. 최근에는 정원 또는 건물의 조경수로도 많이 심는다. 대통밥이나 대통술도 맹종죽으로 만든다. 대나무에 글과 그림을 새기는 낙죽에도 맹종죽을 쓴다.

왕대는 줄기가 굵고 섬유가 질기며 결이 곱고 탄력성이 좋아 죽세공과 죽재(竹材)로서 용도가 다양하다. 왕대는 강해서 곧게 자란다. 옛날 죽창을 만들 때도 이 나무를 썼다. 솜대(분죽)는 줄기에 흰 무늬가 있어 이것이 솜처럼 보인다고 해서 솜대라고 부른다. 죽순도 맛이 좋아 식도락가들의 사랑을 받는다.

죽녹원 안의 한옥체험관에서 숙박을 하면 며칠 동안 양반 사대부가 된 기분이 들 것이다. 침대방에서 의자 생활을 하다 온돌방을 쓰면 처음에는 누웠다 일어나고 앉는 일이 여간 힘들지 않다. 그런데 인간은 환경적응의 동물임을 여기서도 알 수 있다. 둘째 날부터는 앉았다 일어서며 요가를 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대숲에 둘러싸인 한옥체험관 중에서는 등향각(登皇閣)이 가장 덜컥스하다. 한달 내내 땀 흘려 일하고 하루 이틀 황제 기분을 내보는 것도 즐겁지 아니한가.

## 천연기념물 지정된 영산강 둔치 대나무숲

대전면(大田面) 태목리(台木里) 대밭은 하천 변을 따라 길게 이어진 퇴적층에 형성된 대나무 군락지다. 대나무 숲이 울창해지려면 수량이 풍부해야 한다. 태목리 대밭은 영산강의 지류인 대전천 하천습지에 있다.

태목리 대밭은 영산강 8경(八景)에 들어간다. 대나무 숲에 안개가 짙어지면 마실 나갔던 바람이 돌아와 운무(雲霧)를 거뒀가는 죽림연우(竹林煙雨)의 풍경이 연출된다. 대나무밭과 습지에 멸종위기종인 수달 삼 매 큰기러기 흰목물떼새 구렁이 황조롱이 등 다양한 동물이 서식하고 있다. 필자가 사진을 찍기 위해 물억새 숲을 헤치고 나가자 대전천의 철새 수십 마리가 이방인의 침입에 놀라 날개를 치며 비상했다. 우리나라 최초로 하천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이곳에서 다양한 목본(木本) 식물이 밀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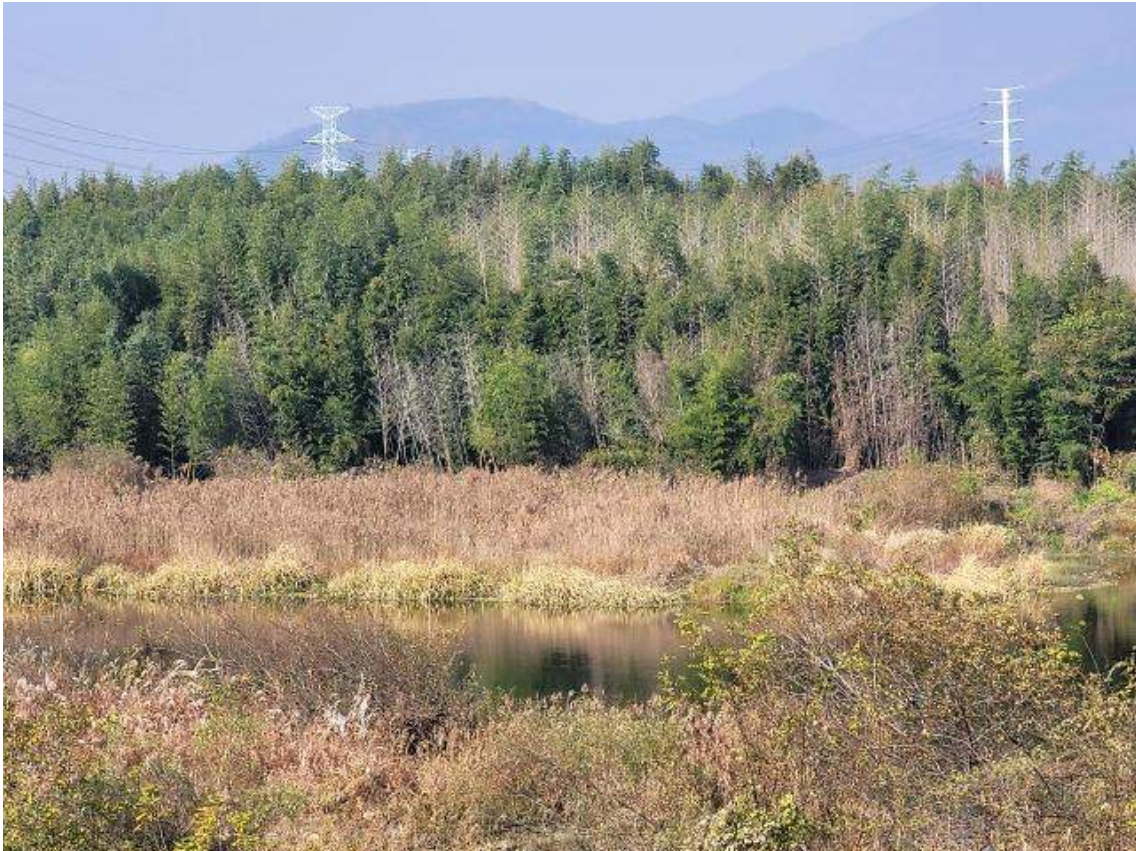


영산강 상류 담양습지. 수달 삼 매 큰기러기 등이 서식한다. [사진=황호택]

문화재청은 2020년 11월 태목리 대나무 숲을 천연기념물 제560호로 지정했다. 대나무 군락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은 처음이다. 담양은 전국 대나무 분포 면적의 36%를 차지한다. 담양 대나무 숲이 국가중요농업문화유산 및 세계농업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데 이어 '태목리 대나무 군락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됨으로써 대나무의 고장 담양의 브랜드 이미지가 더 확고해졌다.

태목리에는 권을 장군 후손들이 가꾸는 대밭이 오랜 세월 잘 보존돼 있다. 옛날 태목리 대밭 옆 대전천 하천 부지에서는 농사를 지었다. 그런데 큰물이 질 때마다 농민들이 땀흘려 가꾼 논

밭의 작물이 쓸려 나갔다. 태목리에서 가장 먼저 김병관 씨(95)가 하천부지에 대나무를 심기 시작했다. 대나무 숲은 물이 들어차더라도 채소처럼 쓸려 나가지 않았다. 김 씨가 대를 심어 돈벌이를 하자 다른 농민들도 논밭과 하천 습지에 대밭을 조성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태목리 대나무 숲.[사진=황호택]

태목리 사람들은 대나무로 바구니를 만들고 죽순 껍질로는 방석을 짜서 담양 죽물시장에 내다팔았다. 대밭 한 마지기에서 나오는 소득이 논 10마지기보다 나았다. 대밭은 홍수 피해도 없었다. 대밭이 없는 사람들은 죽물을 열차에 싣고 서울 부산 경기 강원 등지로 나가 장사를 해 생계를 유지했다.

그러다 하늘이 시샘했는지 1970년대부터 대값이 폭락하고 대밭이 하나 둘 사라져 갔다. 주민들은 대를 베어내고 논밭을 복원했으나 둔치에 있던 대나무들은 방치됐다. 강변의 대나무들은 왕성한 생명력으로 뺨아 나가 무성한 숲을 이루었다.

태목리 사람들은 지금은 대나무 대신 딸기 농사를 짓는다. 돈벌이가 되는 딸기 농사에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는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태목리 대나무밭의 이름이 높아지면서 태목리의 환경친화적 이미지가 딸기 판매에도 보탬이 될 것이다.

< 황호택 논설고문·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겸직교수>  
후원=담양군(군수 최형식) 뉴파워프리즈마(회장 최대규)

참고문헌

- 1.<마크테토의 이이남 인터뷰> 《Living Sense》  
(<https://smlounge.co.kr/living/article/38423>)
- 2.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원 《담양군의 민속문화》 담양군, 2013
- 3.《천년의 역사와 함께 한 국가중요농업유산 담양 대나무밭》 담양군, 2017
- 4 최낙언 <대나무는 사실은 나무가 아니다> 《한국일보》2021.1.28